

# 5·18 계엄군 사망자 '전사자' 표기 수년 방치

오인사적 숨진 12명 등

22명 현충원 묘비 전사자 둔갑

권익위·인권위 재심 요구 외면

보훈처 정정 작업 뒷짐

광주시민을 학살한 5·18 계엄군 사망자들의 '전사자(戰死者)' 표기가 수년째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가보훈처는 국방부에 검토 의견만 요청했을 뿐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장병완 무소속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계엄군 23명의 전사 표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보훈처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장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5·18 당시 사망한 경찰은 '순직'으로 처리된 반면 계엄군 사망자는 '전사자'로 등록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내용이었다.

'군인사법' 제54조의2(전사자 등의 구분)에 의하면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한 사망한 사람', 순직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28묘역과 29묘역에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계엄군 23명이 안장돼 있다. 28묘역에는 부사관 이하 사병 20명이, 29묘역에는 위관급 장교 3명의 비석이 있다. 오발사건으로 사망한 A일병을 제외한 22명의 비석에는 '광주에서 전사'라고 새겨 있다.

이들은 화랑무공훈장(4급, 5명), 인현무공훈장(5급, 6명), 무공포장(10명), 보국포장(1명) 등을 받았으며 서울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에도 이름이 올라 있다.

5·18에 대한 새로운 기록과 증언이 발굴되고 연구가 지속되면서 계엄군 사망자 22명은 대부분 기록을 왜곡해 전사자로 등록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1980년 5월24일 송암동에서 전교사 보병학교 교도대와의 오인사적 때 숨진 11공수여단 부대원 9명, 같은 날 광주를게이트에서 발생한 전교사 기갑학교와의 오인사적으로 숨진 31사단 부대원 3명 등이 전사자로 둔갑했다.

지난해 국감 당시 의원들은 국방차관과 보훈처장 등에게 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사안을 검토해 '전공 심사 재심 요구'를 주문했다.

1년이 지난 현재 보훈처는 국방부에 검토 의견만 요청하고 후속 조치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익위나 인권위 등도 사안을 해결하려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이 문제를 하루빨리 바로잡기 위해 보훈처를 중심으로 국방부·권익위·인권위를 망라한 국가기관들이 모두 참여해 범정부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장 의원은 유족회 등 5·18 단체들이 공법 단체로 지정되지 못하면서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 임대료를 내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도 꼬집었다. 장 의원은 보훈처에 5월 단체를 공법 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5 달뜨기 17:08  
해질 18:04 달지기 03:50

### 기울 하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광주	맑음	14/25	보성	맑음	12/25
목포	맑음	14/23	순천	맑음	14/27
여수	맑음	17/24	영광	맑음	13/22
나주	맑음	12/25	진도	맑음	14/23
완도	맑음	15/26	전주	맑음	13/24
구례	맑음	13/27	군산	맑음	13/23
강진	맑음	13/26	남원	맑음	12/25
해남	맑음	13/25	흑산도	맑음	16/21
장성	맑음	12/24			



###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부 앞바다	북~북동	1.0~2.5	북~북동	1.0~2.5
남해 앞바다(동)	북~북동	0.5~1.0	북~북동	0.5~1.5
남해 앞바다(서)	북~북동	1.0~2.0	북~북동	1.5~4.0
남해 앞바다(남서)	북~북동	1.0~2.0	북~북동	1.5~2.5

### ◇ 생활지수

☀	관심
☁	식중독
☀	보통
☀	자외선
☀	보통
☀	미세먼지

### ◇ 물때

	간조		만조	
	06:14	18:18	00:48	12:57
목포				
여수	01:45	13:44	07:44	20:10

### ◇ 주간 날씨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17(목)	18(금)
☀	☁	☁	☀	☀	☁	☁
16/25	13/23	12/22	10/21	10/21	11/21	12/22

## '5·18 왜곡 도서 출판' 지만원, 5월 단체에 또 억대 배상금 대법 확정 판결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 출판물을 펴낸 지만원(75)씨가 5월 단체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1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5월 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5·18재단, 5·18유공자들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왜곡·편향 도서 출판물 발행, 판매·배포 관련 명예훼손에 따른 손

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26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5월 단체 등은 지난 2017년 2월 지씨가 도서 '5·18영웅상고발'을 만들어 판매하자, 같은 해 6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화보집 형식으로 제작된 해당 도서(16쪽 분량)는 5·18을 북한군 특수부대가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심과 항소심은 지씨가 9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지씨는 이의를 제기하며 상고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5월 단체 등은 지난 1일 이자를 포함한 1억 1400만원의 배상금을 지씨로부터 받았다. 소송을 시작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에도 대법원은 5월 단체가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뉴스타온 호의 1·2·3호' 출판물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 올해 5월 지씨는 이자 포함 1억8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잊따른 소송 패소에도 지만원은 5·18 왜곡·편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광주시, 민주사회를위

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과 연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전남 4년제대학 3년간

### 성비위 사건 11건 징계 처분

최근 3년 새 광주·전남지역 4년제 대학에서 성비위 사건으로 인해 11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교원의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 4년제 대학 11곳에서 최근 3년 새 성비위 사건 관련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 수위는 파면이 2건, 해임 5건, 정직 3개월 2건, 정직 2개월 1건, 감봉 1건 등이었다. 징계를 받은 사람의 절반 이상이 파면과 해임으로 교단을 떠난 것이다.

징계가 가장 많은 대학은 전남대였다. 수의과대학 1명과 의과대학 1명이 성추행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해, 자연과학대 1명과 경영대 1명이 성희롱으로 각각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을 받는 등 4건의 징계가 있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임산부의 날' 출산장려 캠페인 임산부의 날인 10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한 여성병원에서 북구청 저출산 아동팀 직원들과 보건소 직원들이 출산 장려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광주기독병원 파업 43일만에 노사 협상 타결

광주기독병원 장기 파업 사태가 마무리됐다. 병원측과 노조는 임금 단체협상을 타결하고 10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광주기독병원과 보건의료노조 광주기독병원지부(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오전 11시 파업을 종료하고 근무에 복귀했다. 지난 8월 29일 파업을 시작한 지 43일 만이다.

양측은 지난 6일부터 이어진 교섭에서 임금 총액 2.2%를 인상하고, 2017년 기

준 공무원 임금 대비 91%를 지급하는 현행 임금 체계를 4년에 걸쳐 100%에 도달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미지급 통상임금을 받고 야간수당 신설, 특수부서 수당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무복 개선 등도 타결했다.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전남 일부 대학 저소득층 학비 감면 소극적

광주·전남 일부 대학이 저소득층 학비 감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비 감면 1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은 전국 8곳이었다.

광주·전남에서는 목포대가 학부 학비 감면 비율이 9.9%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

른면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에 대해 감액해야 한다.

이 경우 경제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는 전체 감면액(등록금 총액의 10%) 가운데 3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이밖에 광주교대와 광주과학기술원, 순천제일대는 10% 감면 규정을 지켰으나 저소득층 감면 비율은 30%를 넘지 못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맛있는 산이든 무느곤 못 가라!!

**조대부고 총동창회**

# 2019 조대부고인 어울림 한마당

**일시** 2019. 10. 20(일) 09:30~

**장소** 모교운동장

**전화**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김광태

# 노안수술 받으면

## 돋보기 없이

###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J1 4point, J2 5point, J3 6point, J5 8point, J6 10point, J7 12point

1652, 68247581, 251649783, 130758492, 246871280, 462810973, 576214302, 631749802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